

한국병원경영학회의 새로운 계획

정 기 선

가천의대 병원경영대학원 교수, 본회 회장

본인은 지난 정기총회(2001년 10월 12일)에서 제 4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 2대를 인제대의 백낙환총장님, 3대를 연세대 의대의 유승흠교수께서 맡아서 기초를 닦아놓으셨는데 이제는 제가 더 발전시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나 주어진 임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선출된 부회장은 양지병원의 김철수원장, 연세대의 조우현교수(현재 세브란스병원기획조정실장), 경원대의 황인경교수(현재 대학기획처장) 등 3명이며, 감사는 강서제일병원의 선규용 행정원장과 연세대의 이해중교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무이사는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의 선임연구위원인 정수경박사, 학술이사는 아주대병원의 김영배박사, 편집이사는 유한대의 손태용교수가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부회장은 홍보 및 대정부건의 등을, 조우현부회장은 학술대회의 개최, 황인경부회장은 학회지의 편집업무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시키는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간 새 회장단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수확대 및 재정안정

이를 위하여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회비를 조금 올리되, 회비납부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므로써 비회원이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과 차별화한다. 예를 들면 년회비, 평생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나 준회원에게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참가비를 면제하며, 연간 4회 이상 발간되는 학술지를 우송해준다면 회비를 납부할 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평생회비제의 도입

회원중에는 매년 자기가 회비를 납부했는 지를 기억하지 못하여 납부하지 않는 회원도

많으므로 평생회비제(30만원)를 도입하여 많은 회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3) 기관회원의 확대

많은 병원들을 기관회원으로 영입하여 혜택을 주고자 한다. 기관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으로 구분한 후 예를 들면 기관회비를 납부한 대학병원(년 50만원)에 대하여는 춘계, 추계학술대회에 각각 10명 이내의 소속직원이 참가할 경우 참가비를 면제하며, 학술지 발간시 마다 10부를 우송해준다.

(4)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강화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관리자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의 수행, 연수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5) 대 정부 정책사항에 대한 건의

병원과 관련된 주요정책사안이 있을 경우 학회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등 대 정부건의 활동을 강화한다. 우리 학회의 뿌리는 병원에 있으므로 병원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학회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병원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정책사안에 대해 학회의 의견을 밝힐 경우 건의서 등을 작성할 교수 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므로써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또한 현실성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1년도부터 학술지를 년 4회 발간하므로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었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함으로써 금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능하면 수 년내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7) News Letter의 발간

학술지만으로는 회원간의 친목이나 정보교류에 한계가 있으므로 년간 몇 회 News Letter(4쪽 정도)를 발간하여 학회의 활동상황, 회원소식 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8) 경영을 잘 하는 우수병원의 방문

년간 2회 이상 경영을 잘 하는 병원을 회원들이 방문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9) 병원경영대상의 수여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선정하여 학회에서 경영대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10)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논문에 대해 적은 금액이나마 시상하므로써 회원들이 보다 질높은 논문을 쓰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11) 학술대회 연재집이나 학술지의 실비판매

학술대회의 연재집이나 학술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고 판매하여 재정안정에 도움을 주고 또한 회원들에게도 구차하게 더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

(12) 개정된 회비규정의 주요사항

(회비의 종류 및 회비)

1. 입회비 : 본 회 입회시 납부하는 회비(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
2. 년회비 :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정회원 30,000원, 준회원 20,000원)
3. 평생회비 : 년회비 대신 납부하는 회비(300,000원)
4. 이사회비 : 100,000원, 단 평생회비를 납부한 이사는 년 70,000원
5. 기관회비
 - 대학병원 : 년 500,000원
 - 300병상 이상병원 : 년 300,000원
 - 100~299병상인 병원 : 년 200,000원
 - 100병상 미만병원 : 년 100,000원

본 회의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학회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학회들도 대부분 재정이 영세하며 그렇게 운영되므로 우리 학회도 그런 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학회가 제대로 일을 해나가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없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회는 다른 학회와 달리 경영을 연구하는 학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회운영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비를 낸 회원과 안낸 회원 및 비회원들이 받는 혜택에 상당한 차이를 두어 회비를 내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풍족해지면 회원들이 제출한 논문에 대한 사독비나 학술대회시 발표한 사람에 대한 강사료 등도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계의 여러 현안문제를 피안의 불처럼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 잘못된 정책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병원계의 다른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